배우 차은우 "연기력 늘었다고? 그때 그때 최선 다하려한다"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물 활약, 처음으로 판타지 액션물 도전
티빙 드라마 '아일랜드' 속 주인공의 모습 기존과 결이 달라

티빙 드라마 '아일랜드' 속 차은우(26·이동민)의 모습은 기존과 결이 달랐다.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물에서 활약하다 처음으로 판타지 액션물에 도전했다. 힙한 구마사제 '요한'으로 변신,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2015) 강동원(42), '손 더 게스트'(2018) 김재욱(40) 등 이전에 구마사제를 연기한 선배들과도 차별화했다. 전작인 영화 '데시벨'(감독 황인호·2022)에서 연기력이 확 늘어 놀랐는데, 아일랜드에서도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데뷔 초부터 줄곧 따라다닌 연기력 논란 꼬리표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기력이 늘었다고) 좋게 봐줘서 감사하고 뿌듯하다.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데시벨도 최선을 다했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경험치가 좀 더 쌓여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닐까 싶다. (과거 연기력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반응도 겸허하게 받아들인 건 받아들였다. 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 좋은 양분을 많이 쌓으려고 한다. 아일랜드에선 당연히 (내 연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요한이를 만나길 잘했다' 싶다. 얻은 것도 배운 것도 많고, 파트2는 더 잘 되길 바란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악과 맞서 싸우는 이들의 여정을 그렸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차은우는 가톨릭 구마사제 '요한'을 맡았다. 총 12부작으로 지난해 12월 파트1(6부)을 공개했으며, 24일 파트2를 선보일 예정이다. 애초 재벌 3세이자 교사 '원미호'(이다희) 역에 서예지(33)가 캐스팅됐지만 개인사로 하차, 촬영이 늦춰지고 OCN에서 티빙으로 편성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무엇보다 김남길(43)의 조언은 큰 힘이 됐다. 드라마 '여신강림'(2020~2021) 촬영할 때부터 기다렸다며 "작품이 딜레이 됐을 때 남길 형이 따로 연락을 줘 '같이 하자'고 했다. 형을 믿고 같이 해보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남길 형 뿐만 아니라 다희, 성준 선배 등이 어떻게 (캐릭터에) 접근해 현장에서 만들어가고, 스태프들과 호흡하는지 등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낀게 많다. 나도 모르게 선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남길 형이 장난기가 많은데, 리허설에 들어가면 바로 몰입했다. 액션신 찍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참고해 이런 느낌을 내보자고 했고, 숙소도 근처에 있어서 촬영 전후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귀띔했다.

극중 요한은 K팝을 즐겨 듣는 등 힙한 매력을 뽐냈다. "어리지만 구마의식을 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거나 액션할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며 "요한이는 신부인데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느냐. 원작에서 착안했다. 배종 감독님이 '안 하는게 어때?'라고 했지만, 내가 고수했다. 웹툰에서 가져올 건 가져와서 좀 더 생동감있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구마의식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요한은 기존 사제와 색깔이 달랐다. 감독님과 어떻게 하면 요한이스럽게 표현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초반에 요한이 까불 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나도 장난 치는 걸 좋아하는데, 까불 거리진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액션신은 호불호가 갈렸다. 배 감독은 첫 드라마 연출이다. 자신이 만든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의 팝콘신처럼 액션신에서 자꾸 슬로우 모션을 걸어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느 한 쪽으로 생각하기 보다 편집이나 슬로우모션 등은 보는 사람의 성향, 스타일 차이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며 "촬영할 때는 (감독님과) 소통이 잘 됐고 재미있었다. 공개된 후 작품을 여러 번 돌려봤다. 요한이에게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봤다"고 했다.

"파트1에서 내 손으로 형 '찬희'(최태준)를 처단한 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신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다. 함께 보육원에서 지내다 입양되는 등 서사가 있었다. 몇 년만에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극본으로 봤을 때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 신을 찍고 속이 허했다. 감독님도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파트2에선 요한의 고민과 갈등이 그려질 예정이다. 신이 있다고 믿고 따랐는데, '왜 신은 우리 형을 버렸을까?'라는 내적 갈등·고민이 쌓이면서 강해지고 액션도 화려해진다. 캐릭터 관계가 쌓여서 나오는 케미도 관전 포인트다."

아일랜드는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세계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먼저 온 상태다. "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뻤다"며 "아무래도 판타지 액션 장르를 재미있게 봐준 것 같다. 각 캐릭터도 매력적이지 않느냐. 제주도 로케로 찍어서 장소적인 부분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로) 멤버들은 '너가 로맨스 하는 게 아니라서 보기 편했다'고 하더라. 연습생 때부터 거의 10년간 동거동락한 사이라서 그렇다"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도 '편해 보인다' '오~액션 멋있는데' 등의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트1·2로 나눠서 공개해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나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크게 어떻게 생각하기 보다, 작품이 더 잘되길 위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다. '좋다, 싫다'고 하기 보다 CG 후반작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선택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받아들였다"며 "그 사이에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노력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파트2는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차은우는 데뷔 초부터 배우·가수 활동을 병행했다. 2014년 영화 '두근두근 내인생'(감독 이재용)으로 연기를 시작했고, 2년 뒤인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노래하고 무대에 설 때 따뜻함과 쾌감이 있다. (배우와 가수) 둘 다 표현하는 직업이라서 유대성이 있고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며 "노래하고 연기할 때 많이 사람들이 지켜봐주는 쾌감이 미세하게 다르지만, 둘 다 익숙하면서 재미있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데뷔 초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지겹도록 들었지만, 항상 "좋다"며 웃었다. "요한이도 그런 캐릭터"라며 "민망하면 끝도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 (잘생긴 후배들 보면)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나도 자신감은 있다"고 털어놨다. 물론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슬플 때도 많다"면서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먼저 다가와 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라고 하고, 대화하면서 푼다. 유튜브에서 다른 배우들의 시상식 수상소감을 저장해놓고 보면 다시 또 샘솟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최근 소속사 판타지오와 재계약했다. 멤버 진진(27·박진우)과 문빈(25), 윤산하(22)도 함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MJ(29·김명준)는 군 복무 중이며, 라키(24)는 재계약을 논의 중이다.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당연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계약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내가 먼저 그러는 건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나름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다. 멤버들이 더 중요한 것도 크고, 지금까지 데뷔하고 바쁘게 활동해 정이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생각해보진 않았다. 우선 아일랜드 파트2를 잘 마치고, 지금 촬영 중인 '오늘도 사랑스럽개'도 열심히 하고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싶다. '나는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가 목표야'라고 생각하기 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잘 수행하고 돌아봤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다. 이후 많은 분들이 '괜찮은 친구네' '멋있네'라고 바라봐주면 뿌듯할 것 같다."

뉴시스

'혜미리예채파' 혜리 "2년만에 예능 복귀? 이태경 PD 향한 믿음 덕분"

tvN '놀라운 토요일' 하차 이후 2년 반 만에 예능으로 컴백

그룹 '걸스데이' 겸 배우 혜리가 2년만에 예능에 복귀한 소감을 전했다.

22일 ENA 예능물 '혜미리예채파'는 멤버 혜리와 함께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혜미리예채파'는 외딴 산골에서 안락한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예능이다. 혜리, (여자)아이들 미연, 리정, 최예나, 르세라핌 김채원, 파트리샤가 출연한다.

tvN '놀라운 토요일' 하차 이후 2년 반 만에 예능으로 컴백한 혜리는 "하차 이후에도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예능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다"고 전했다.

혜리는 "오래 전부터 여자 출연자들끼리 모여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마침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기뻐했다.

'놀라운 토요일'에서 합을 맞췄던 이태경 PD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혜리는 "재회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 마지막 녹화를 하던 날 둘다 눈물을 보였는데, 민망해질 정도로 빨리 만났다. 긴 시간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 잘 알고, 믿음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패션위크' 내달 15~19일 개최…홍보대사 '뉴진스'

서울시, '2023 F/W 서울패션위크' DDP서 열어

서울시가 올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F/W 서울패션위크'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다음 달 15~19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F/W 서울패션위크는 30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주박람회 트레이드쇼,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그룹 '뉴진스(NewJeans)'가 활약한다. 뉴진스는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 진입하고 두 개의 밀리언셀러 음반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으로 지난 16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패션쇼 무대는 서울패션위크 시작 23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일자' 형태에서 '원형'으로 바뀌었다. 관객들에게 보다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트홀 1관 스타디움 런웨이는 방사형 구조로 조성되고, 아트홀 2관의 활주로 런웨이에는 대형 LED 벽이 설치된다.

서울컬렉션 패션쇼 전체 순서는 디자이너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닝 무대는 서울컬렉션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를 받은 '얼킨(Ul:kin)'의 이성동 디자이너가 맡는다. 이번 패션쇼에서 국내외 바이어가 다시 보고 싶은 쇼로 꼽히는 5개 브랜드는 다음 시즌 패션위크 때 특전을 제공받는다.

패션위크 기간에는 전 세계 27개국, 130여 명이 참여하는 수주박람회 트레이드쇼가 DDP 디자인랩 D-숲에서 진행된다. 트레이드쇼에는 서울컬렉션, 제너레이션넥스트 등에 참가하는 브랜드를 비롯해 총 7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파리패션위크 공식 수주박람회인 '트라노이'에는 서울을 대표한 6명의 여성복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서울패션위크 전용관'도 마련된다. 파리 박람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나흘간 파리 브롱나이궁에서 개최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DDP 어울림 광장에서는 패션 인플루어선가 함께하는

라이브 스튜디오가 열리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조성된다.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100% 현장 패션쇼로 진행된다.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공식홈페이지와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션쇼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에는 다음 달 7일부터 초청장이 발송된다.

박규리, 前남친 논란 "너무 억울하고 답답"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속상한 심경을 내비쳤다.

박규리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참다 보면 어느샌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 그런 나를 비웃듯이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내가 타이틀에 오르내리고 방패막이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직업상의 이유로 입을 다물고 모든 걸 감내하고 있다"며 "간신히 회복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또 엮여서 터지니 이제는 삶에 있어서 뭘 시도하기 두렵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작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규리는 "나는 지금 훨씬 이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던 일본 팬미팅에 가고 있다. 공식입장에서 밝혔듯이 나는 얽힌 바가 없다. 사람을 어딜 도망가는 것처럼 매도하지 말아라. 모두 사실에 의거해서 글을 썼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아무 의욕도 없는 요즘이다. 이 상황에서 잘못을 한 누군가는 아주 잘 살아가고 있을텐데 이 모든 것들도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을 쉬고 싶다. 팬들과 멤버들에게 미안하다. 남은 정신줄 놓아버리지 않게 저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규리의 전 남자친구는 미술품 연계 P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자 친구 회사에서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주 떠난지 18년…"2월이면 간절히 생각"

배우 이은주(1980~2005)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이 흘렀다.

이은주는 2005년 2월22일 스물 다섯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엄마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97년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했다. 이후 '카이스트'(1999~2000), '불새'(2004)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영화 '오! 수정'(감독 홍상수·2000), '번지 점프를 하다'(감독 김대승·2001), '연애소설'(감독 이한·2002), '태극기 휘날리며'(감독 강제규·2004), '주홍글씨'(감독

변혁·2004) 등에도 출연했다.